

북스

어린이 책꽂이



▲21세기 만나라 이웃나라 13 중국 1 근대 편 =이원복 교수의 '만나라 이웃나라' 시리즈 중국 편이다. 두 권으로 기획했으며 첫 권인 이번 책은 청나라 후기에서 중화민국 성립까지 중국 근대를 다루고 있다. 울 커틀러판으로 아편전쟁, 서태후의 섭정,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중국 근대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영사·1만1900원>



▲등글등글 아빠표 주먹밥=아빠가 만드는 주먹밥은 대체 어떤 주먹밥일까. 아삭아삭 김치를 송송송 송송송, 길쭉길쭉 당근을 똑똑똑 따기 딱딱, 부들부들 시금치를 송송송 송송송..... 주먹밥을 함께 만드는 아빠와 아이들을 지켜보며 우리말의 즐거움과 가족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이다. <시공주니어·9500원>



▲나는 말더듬이예요='왕따' 문제를 주제로 한 이윤화 작가의 신작 동화. 말을 더듬는 친구를 왕따시키며 괴롭히는 무리에 속해 있던 주인공 '형진'이 갑자기 자신도 말을 더듬게 되면서 왕따를 당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왕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면서도 동화답게 유쾌한 필치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주니어랜덤·9800원>



▲이선비, 한양에 가다=아이들과 독서 토론 수업을 하고 있는 세계로씨가 실제 아이들의 궁금증과 눈높이를 잘 반영하여 쓴 역사 동화보 영웅 발랄한 이선비의 좌충우돌 한양 상경기를 통해 옛 사람들이 교통과 통신을 어떻게 발달시켰는지 알아본다. 이우창씨의 재치 있는 일러스트도 돋보인다. <아이세움·9000원>



▲미소녀 고은비=아이들의 중요 관심사인 '외모'의 문제를 재미있게 다뤘다. 은비는 못생겨서 고민이 많다. 그런데 어느 날 '매직 성형 의과'에서 마법의 힘으로 수술을 받고 달라보게 예뻐진다. 이제 은비에겐 이젠과 전혀 다른 짜릿한 생활이 펼쳐지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가문버이리·8900원>



▲고래는 어디로 이동할까=그림책 형식의 과학책 '어메이징 사이언스' 시리즈 여섯 번째 권. 고래가 바닷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는지, 고래의 이동과 함께 새끼 고래가 어떻게 이룬 고래가 되는지 알려준다. 또한, 고래가 왜 매년 수천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는지 등 고래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을 풀어 준다. <파리새·1만1000원>



▲아호, 나도 자전거 탈 수 있다!=오늘은 단짝 친구인 토토와 라이오가 두발 자전거 타기를 연습하는 날. 토토는 가족들이 나가자 차고에서 빨간 자전거를 꺼내, 라이오와 함께 두발 자전거 타기에 도전하는데...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데 두려움을 갖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땀을 흘리는 기쁨과 자신감을 가르쳐 준다. <국민서관·9000원>

▲특! 쓰는 물고기='어린이 자연학교'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날카로운 가시나 침으로 무장하고, 독이 든 갈고리나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이상한 바다 생물들을 다룬다. 저마다 무기를 통해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오고 있는 수천 종의 바다 생물들을 흥미롭게 소개했다. <청어람주니어·9500원>

안평대군·연산군 등 그림 애호가들 이야기

조선의 그림 수집가들

손영옥 지음



세계적인 컬렉터 페기 구겐 하임은 1960년대 "보물을 보존해 대중에게 보여 주는 것"이 컬렉터의 의무라고 말했다. 구겐하임의 밝은 눈이 짙은 풀록을 미술사에 남겼다. 현대미술의 슈퍼스타 데미언 허스트를 발굴한 것은 광고 재벌 찰스 사치의 판단이었다. 이를 컬렉터는 현대 미술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조선에도 훌륭한 컬렉터들이 있었다. 손영옥 국민일보 선임기자의 신간 '조선의 그림 수집가들'은 조선시대 이른바 '컬렉터'들을 조명했다.

책은 안평대군과 정조, 실학자이자 문인인 연암 박지원 등이 수집가이기도 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안경에게 자신이 꿈에서 본 광경을 그리게 해 '몽유도원도'를 탄생시킨 안평대군의 이야기로 책은 시작된다. 안평대군은 10대 때부터 서화를 수집하기 시작해 27세에 이미 중국의 시기별 대가들의 작품을 200여점이나 소장했다. 조선 화가 중에는 유일하게 안경이 그의 컬렉션에 이름을 올렸다. 명필로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린 안평대군의 글씨가 조맹부의 서예 작품을 26점이나 보유하며 필법을 터득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또 연산군이 화원들에게 "기생을 데리고 동산에 가는 중국의 고사를 그려라" 등 기존 유교 사회의 이념을 깨뜨리는 주문을 했다는 내용도 흥미롭다. 연산군은 예조판서의 관할인 도화서 화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요구하고 동산에 가는 중국의 고사를 그려라" 등 기존 유교 사회의 이념을 깨뜨리는 주문을 했다는 내용도 흥미롭다. 연산군은 예조판서의 관할인 도화서 화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요구하고 동산에 가는 중국의 고사를 그려라" 등 기존 유교 사회의 이념을 깨뜨리는 주문을 했다는 내용도 흥미롭다.

진시기도 했다. 김홍도의 막강한 후원자였던 정조도 빼놓을 수 없는 미술 애호가다. 정조는 화원 시험에서 "모두 보자마자 걸걸 옷을 만한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를 낼 만큼 풍속화를 즐겼다. 수집가를 넘어 수집벽(蒐集癖)에 이른 상고당 김광수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서화뿐 아니라 회화서적, 청동술, 문방·금석류 등까지 관심을 뻗었다. 뜰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를 보고 달력 집을 계약할 정도로 유별났다. 의관이었던 김광국은 양반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서화 수집에 뛰어들어 '중인 컬렉터'다. 그는 약재 무역으로 번 재산으로 각종 미술품을 사들였다. 조선과 중국의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등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동관화와 일본 우키요에까지 망라한 국제적인 컬렉션을 모았다. 또한 별도의 수장고를 지어 수집품을 보관했고, 소장품 목록에 평을 곁들인 화첩까지 만들었다. 이밖에도 친구 정선에게서 받은 그림들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이병



안평대군은 이미 중국의 시기별 대가들의 작품을 200여점이나 소장했던 조선의 대표적인 컬렉터였다. 사진은 겸재 정선의 '인왕재색도'.

이조목은 왕희지 때의 것이라는 말에 말린 파리까지 샅을 만큼 수집벽이 심했다. 그는 공민왕의 거문고부터 중국 명화까지 가리지 않고 사들인 끝에 결국 말년에는 거처할 집조차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친구 정선에게서 받은 그림들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이병

연,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유배당한 스승에게 변함없는 의리를 지켜 '세한도' 탄생에 이끌어낸 역관 이상적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조선시대 그림값은 얼마였을까' '조선시대에도 위작이 판매했다' 등 흥미거리도 곁들였다. <글함아리·1만9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위로 받고 싶게 들랑 책을 읽어라

마녀의 독서 처방

김이경 지음



책을 소재로 한 독특한 소설 '순례자의 책'을 펴낸 편집자 출신 김이경씨가 이번에는 책 안에서 '마녀의 독서 처방'을 펴냈다. 틈 날 때마다 시립도서관을 찾아 수많은 책을 읽은 저자는 자신이 책에서 늘 위로를 받았듯, 누군가도 그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독서 처방'을 내리기 시작했다. 책은 설행, 사랑, 자유, 희망, 위로, 이별 등 7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며 책을 소개한다. 슬픔이 목까지 차오를 때 그녀가 권하는 책은 9·11 테러로 아바를 잃은 수다스런 아홉살짜리 소년 오스카가 등장하는 조너선 사프란 호퍼의 소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다.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맞는 걸까, 문득 의문이 생길 때 그녀는 이리스 윌튼의 '순수의 시대'를 권한다. 이미 세차레나 영화화 될 정도로 연애 소설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 책에서는 손에 잡힐 듯 말듯 할 때는 간절하다가, 막상 곁에 있으면 심드렁해지는 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건넨다. 저자는 그밖에 박용남의 '꿈의 도시 푸리제바', 필리프 프티의 '나는 구름 위를 걷는다', 주재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등 100여권이 넘는 책을 소개하고 있다. <서해문집·1만29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춘추전국시대 관중과 문공의 모든것

춘추전국이야기 1, 2권

공원국 지음



10년째 중국 오지를 여행하는 중국전문가인 공원국씨가 춘추전국시대의 역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한 '춘추전국이야기' 시리즈를 출간했다. 계획된 시리즈 12권 중 1권 '최초의 경제학자 관중'과 2권 '영웅의 탄생'이 먼저 나왔다. '춘추전국이야기'는 흥미롭고도 치열한 열국의 각축과 흥망성쇠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안목을 제시한다. 또 인생의 영욕과 의미,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흐름을 살피도록 했으며 수많은 국가가 명멸하는 과정과 그 중심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 했다. '춘추전국이야기 1-최초의 경제학자 관중'에서는 춘추시대의 경제체제, 행정, 군사, 법률, 외교 등 모든 방면의 질서를 세운 관중을 조명했다. 그가 세운 정책들, 춘추전국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마리를 제공한 관중의 사사들을 통해 관중이 춘추시대 질서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담았다. '춘추전국이야기 2-영웅의 탄생'은 19년이라는 오랜 망명 생활을 거쳐 환국해 진나라 군주가 된 문공의 이야기를 다뤘다. 시리즈는 '남방의 용왕가 초 장왕', '위대한 재상들의 시대', '오월의 검이 춘추를 베다'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역사의 아침·각권 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불교의 마음 수행 '삼학 실천법'

붓다 브레인

해스·멘디우스 지음



미국의 임상심리학박사이자 명상지도자인 릭 해스나 신경학자 리처드 멘디우스가 쓴 '붓다 브레인'은 불교의 마음 수행법인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을 실천함으로써 뇌를 바꾼 마음과 몸의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누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원제 'Buddha's Brain'. '계'는 우리의 행동과 말, 생각을 통제해 자신과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덕을 쌓는 것으로 공감, 친절, 사랑의 뇌를 이루는 근거가 되며 '정'은 한결같이 마음을 집중해 번뇌를 벗어나는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내부와 외계를 파악할 때 어떻게 주의 집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무엇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도움을 주는가를 깨달은 후 고통을 끝내는 법을 가리킨다. 책은 독자가 책이 이끄는 대로 마음 수련에 도전해볼 용기를 북돋우고 실제 수련법을 제시한다. 점에서 종교적 색채가 짙은 기존의 불교 명상수련 입문서와는 다르다. 아울러 현대 뇌과학의 성과가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줘 불교가 왜 '가장 과학적인 종교'라는 평가를 듣는지도 곱씹어보게 만든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와 딸 장주영씨가 번역했다. <불광출판사·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를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층 / 로얄층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할인금액 6천만
주변 소림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서 투자기회 상승 기대 최근 대림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탐공인중개사 ◎ 대림124동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믿음 공인중개사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첨단지구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1층이 옷매장들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역할 조립, 제조회사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완비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50평, 134평, 100평 매물 (다량보유)
구할: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공단, 매매, 임대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전곡, 임곡, 동이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회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로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4,000평
• 건물: 650평
• 전: 9,500평
• 합계: 13,500평
- 매가: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플러스부동산
년 수익률 10%이상책임보장
1억직접투자 시
년 1000만원이상소득가능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 영림 계획 작성, 전국·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티등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다
상표등록 T.062)226-3377 FAX.226-3399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서울, 경기)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통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망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빌딩단지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T.081-5986 H.011-601-6354
(서원동 건너 순천도로변)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신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시실분과 연오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동구, 대인동 상일부동산)